

# 조선 15~16세기 內需司의 왕실 관련 銘文磁器 생산과 한계

The Production and Limitation of Porcelain  
with Inscription for Royals by Naesusa in  
15th~16th-century Joseon Era

김 귀 한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위원

I. 머리말

II. 왕실 관련 명문자기 현황

III. 내수사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 제작과 배경

IV. 내수사 製磁 활동의 한계와 관으로의 역할 이관

V. 맺음말

# 국문 요약

이 글은 문헌과 물질자료를 통해 15~16세기 내수사(內需司)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銘文磁器) 생산과 한계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467년경 왕실 소용의 그릇은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인 관요(官窯)와 내수사에 의해 이원적(二元的)으로 공급되었다. 왕실에서 소비하는 자기 가운데 ‘국용(國用)’은 관요에서, ‘내용(內用)’은 내수사에서 생산하였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내수사에서 왕실 관련 명문자기를 제작하였는지, 왜 내수사의 제자(製磁) 활동이 중지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백자는 세종대 어기(御器)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조대는 그 수요가 한층 증대되었다. 백자의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464년 횡간(橫看)이 제정되었고, 1465년 공안(貢案)이 개정되었다. 왕실은 이전에 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1464년경 내수사에 사기장을 두고 ‘大’·‘中’·‘世’·‘處’명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수사는 사기장 6명만 소속되었다. 백토(白土)나 시지(柴地) 등도 공급받지 못하여 백자 소비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16세기 왕실의 재정 수요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왕실 관련 명문자기는 15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이후 생산 수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1501년 신유공안(辛酉貢案) 가행조례(可行條例)에 보이는 전용(轉用)과 가정(加定)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왕실은 늦어도 1490년경부터 사옹원의 백자를 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흐름은 1501년 신유공안 제정을 기점으로 일반화되었다. 왕실은 1501년 이후 감결(甘結)을 통해 사옹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15세기 말~16세기 초 관요는 체제가 안정되면서 왕실의 백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내수사 사기장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사는 1460년대 왕실 내 백자의 사적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요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적용된 1501년을 중심으로 한 15세기 말~16세기 초 내수사에 의한 자기 번조는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와 사옹원에 의한 이원적 백자 공급 체제는 사옹원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사옹원, 내수사, 왕실, 명문자기, 신유공안

## I . 머리말

자기(磁器)는 근세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명문(銘文)이 표기되어 유적의 편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근래 한양도성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명문자기(銘文磁器)가 출토되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處’명 백자이다.

박정민(2015: 55~72)은 ‘處’명 백자를 내수사(內需司)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大’·‘中’·‘世’ 등 왕실 관련 명문이 새겨진 자기 또한 내수사에 소속된 사기장이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sup> 이러한 그릇의 용도를 내용(內用)으로 파악하고,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인 관요(官窯)에서 국용(國用)으로 진상한 ‘天’·‘地’·‘玄’·‘黃’명 백자와 구분하였다. 나아가 관요 설치 이후 1560년대까지 내수사와 사옹원에서 소비 목적에 따라 이원적(二元的)으로 백자를 공급하였다고 해석하였다(박정민 2016: 67~88). 박정민의 연구는 관요 일색인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 흐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조선시대 내수사는 왕의 사장(私藏)으로 임금의 사적인 재원(財源)을 마련하였다. 왕실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박정민의 견해는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내수사의 요업 활동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제작 시기를 분명히 제시 할 수 없어 논의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를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에서 ‘大’·‘中’·‘世’·‘處’명 자기가 수습되어 주목된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9; 경기도자박물관 2019a · 2019b · 2020). 왕실 관련 명문자기는 우산리 일대의 요지군(窯址群)에서 출토되었는데, 가마의 운영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도편(陶片)도 함께 수습되었다. 생산유적에서 확인된 명문자기는 번조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유적 출토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1) 이 글은 ‘大’·‘中’·‘世’·‘處’ 등 그릇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을 대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명문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왕실 소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백자에 새겨지는 명문은 일정한 수량의 백자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세조실록』 권30, 9년(1463) 3월 10일: 김귀한 2020a: 153~154). 한편, 『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DB로 구축된 자료는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지 않았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roy.go.kr>) 참조).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관요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5~16세기 내수사의 제자(製磁)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sup>2)</sup> 먼저,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현황을 정리하고 내수사에서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내수사와 사용원에서 이원적으로 공급하던 백자가 언제부터 관요로 일원화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도 전개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15~16세기 내수사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생산과 한계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기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Ⅱ. 왕실 관련 명문자기 현황

15세기 대표적인 왕실 관련 명문백자는 ‘內用’이 새겨진 그릇이다. 내용은 국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비하는 그릇을 의미한다(박경자 2009: 144~151). ‘內用’명 백자는 광주 우산리 일대의 요지군에서 확인되었다(김봉준 2010: 130~133). 대부분 지표조사에서 수습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도 생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공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內用’명 백자의 제작 시기는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內用’명 백자는 1389년 조준이 공양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등장하는 내용자기(內用磁器)와 관련이 있으며, 1417년 공납자기(貢納磁器)에 관사명을 표기하게 한 기록을 바탕으로 141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김영원 2011: 80~82; 김봉준 2010: 142~145).<sup>3)</sup> 그리고 생산 시기를 1420~1430년대(박경자 2009: 147~155)와 1440년대로 추측한 견해(전승창 2008: 118~119)도 발표되었다. 필자는 ‘內用’명 백자가 경질백자(硬質白磁)라는 점에 주목하여 1430년대 이후에 번조된 것으로 파악한 주장(이종민 2008: 376~390)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견

2) 소비유적인 한양도성에서 출토된 왕실 관련 명문백자 또한 내수사의 요업 활동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물질자료이다. 다만, 소비유적의 경우 유물의 연대를 15~16세기 중 정도로 폭넓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비교적 제작 시기가 분명한 생산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나아가 한양도성에서 수습된 왕실 관련 명문백자를 고려하여도 이 글의 논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유적 출토 왕실 관련 접각명 백자의 존재는 16세기 생산유적에서 ‘大’·‘中’·‘世’·‘處’명 백자의 제작 수량이 감소하였다는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는 Ⅳ장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3)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1, 원년(1389) 12월: 『태종실록』 권33, 17년(1417) 4월 20일.

은 1433년경 세종이 백자를 어기(御器)로 사용하는 상황과도 부합된다.<sup>4)</sup>

한편, 근래 한양도성에서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왕실 관련 명문자기는 ‘大’·‘中’·‘世’·‘處’ 등의 명문이 새겨진 백자와 청자이다. 선행 연구(김봉준 2010: 135~137; 박정민 2015: 59~65; 오영인 2017: 226~230)에 의하면 ‘大’는 대전, ‘中’은 중궁전, ‘世’는 세자전, ‘處’는 왕족의 처소(處所)를 뜻한다. ‘王’·‘殿’·‘仁’ 등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명문이다. ‘王’은 문자 그대로 대전, ‘殿’은 ‘전하(殿下)’의 간칭으로 대전, ‘仁’은 인정전(仁政殿)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쉽게도 이러한 왕실 관련 명문자기 또한 생산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로 지정된 우산리 4·14호 요지 등에 대한 학술조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를 요지는 모두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확인되었다.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英’명잔>은 1469년 영릉(英陵)을 현재의 여주로 천장(遷葬)한 기록과 관련하여 1469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奉(先)’명접시>는 봉선전(奉先殿)이나 봉선사(奉先寺)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릇으로 1472년 숭은전(崇恩殿)을 봉선전(奉先殿)으로 고쳤다는 문헌을 바탕으로 1472년경에 생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백자상감‘益城郡洪/李氏系’명지석>은 1473년에 사망한 홍옹(洪應)의 처 정경부인(貞敬夫人) 안성 이씨(安城 李氏, ?~1473)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산리 4호 요지는 1460~1470년대, 우산리 14호 요지는 1480년대경에 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제작 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정담 2018: 11~14; 김미소 2019: 22~37).

[표 1] 15세기 왕실 관련 명문자기 출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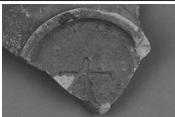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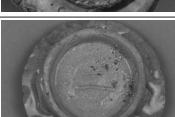
요지	운영시기	명문	비고
우산리 2호	1430년대 이후	内用	발굴
우산리 4호	1460~1470년대	内·大·王·殿·仁·中·處	시굴
우산리 5호 <sup>5)</sup>	1460~1470년대	大	시굴
우산리 10호 <sup>6)</sup>	1480년대(?)	中	시굴
우산리 14호	1480년대	中·世	시굴
우산리 17호	우산리 4호 요지와 유사(?)	仁	지표

4) 『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1월 1일.

5) 우산리 5호 요지는 우산리 4호 요지와 연접해 있다. 우산리 17호 요지는 우산리 5호 요지와 약 2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이들 요지는 모두 광주목에 소속된 공납요(貢納窯)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우산리 10호 요지는 ‘中’과 ‘黃’이 유면음각되어 있는 백자가 출토되었다. 이 요지는 우산리 14호 요지와 인접해 있어 하나의 생산시설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2] 15세기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의미(경기도자박물관 2019a, 2019b)

명문	의미(출토지)	사진	명문	의미(출토지)	사진
内	내용 (우산리 2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處	처소 (우산리 4호 요지)	
大	대전 (우산리 4호 요지)		王	왕(대전) (우산리 4호 요지)	
中	중궁전 (우산리 4호 요지)		殿	대전(?) (우산리 4호 요지)	
世	세자전 (우산리 14호 요지)		仁	인정전 (우산리 4호 요지)	

한편, 16세기의 경우 왕실 관련 명문백자가 수습된 사례는 많지 않다.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경기도자박물관 2016: 122)에 의하면 무갑리 2번 요지에서 <백자‘內’명저부편>이 수습되었다.<sup>7)</sup> 당시의 도면을 검토한 결과 이 요지는 현재 무갑리 2호 요지 부근으로 판단된다. 무갑리 2호 요지는 <백자철화‘世’명저부편>이 출토된 바 있다(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8). 이 요지는 ‘天’·‘地’·‘玄’·‘黃’명백자가 공반되었다는 점에서 대략 16세기 전반경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곤지암리 1호 요지에서도 <백자‘別世’명저부편>이 확인되었다. 이 요지는 이후의 발굴조사에서 <백자청화‘隆慶六年’명지석>이 조사되어 융경(隆慶) 6년인 1572년경에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표 3] 16세기 왕실 관련 명문백자 현황(경기도자박물관 2016;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8)

		
백자‘内’명저부편 무갑리 2호 요지	백자철화‘世’명저부편 무갑리 2호 요지	백자‘別世’명저부편 (곤지암리 1호 요지)

7) 김영훈 선생 기증도편 자료집에 의하면 무갑리 2번 요지에서 <‘宮內’명백자>가, 대쌍령리 2번 요지에서 <‘內’명백자>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 유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기준의 연구 성과와 [표 1]~[표 3]을 참고하면 15~16세기 왕실 관련 명문자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왕실 관련 명문은 백자뿐만 아니라 청자에도 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백자는 왕, 청자는 세자의 그릇으로 이해된다(김영미 2010: 101~103). 하지만 <청자‘王’명저부편>과 <백자철화‘世’명저부편> 등은 유색을 통해 왕과 세자의 기명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sup>8)</sup> 『용재총화』에 의하면 세종은 백자를 전용(專用)하였으나 세조는 청자도 잡용(雜用)하였다.<sup>9)</sup> 세조의 재위 기간(1455~1468)과 우산리 4호 요지의 운영 시기(1460~1470년대)를 고려하면 이 요지에서 수습된 청자를 동궁의 기명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동궁의 색이 초록색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적어도 1536년(중종 31) 이전에는 그것이 그릇을 포함한 모든 기물이나 의복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sup>10)</sup>

둘째, 1480년대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된 명문자기는 대부분 개별번조되었지만 태토나 유색이 좋지 않다. 물론 ‘一’이나 ‘四’ 등이 적힌 철화백자와 같이 다른 유물에 비해 백색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품질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이에 비해 우산리 14호 요지에서 확인된 명문자기는 대부분 백색도가 높다.<sup>11)</sup> 왕실 관련 명문의 주된 표기 방식도 음각에서 유면음각으로 바뀌었다.<sup>12)</sup> 이와 같은 변화는 관요가 우산리 4호 요지

8) 오영인(2017: 223~230)은 관요가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에 왕실의 다양한 공간에서 청자가 백자와 함께 사용된 것을 『경국대전』형 전 금제조 조항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였다. 대전은 백자, 동궁은 청자를 사용한다는 기록은 『經國大典註解』「後集」에 처음 등장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註解 下, 刑典 禁制 白磁器, “御膳用白磁器 東宮用青器 禮賓用彩文器”). 즉, 『經國大典』 금제조에는 청화백자의 규제만 수록되었는데, 이 조문이 약 80여 년이 지난 1554년경의 시각으로 재해석되면서 왕과 세자의 기명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鄭肯植 2008: 286~287; 鄭肯植 외 2009: 12~30). 세조는 직접 『경국대전』에 관한 사항을 제결 하였다. 『慵齋叢話』에 의하면 세조는 청자를 잡용(雜用)하였다(『慵齋叢話』 권10, “(상략) 世宗朝 御器專用 白磁 至世祖朝 雜用青磁”). 따라서 실제 유색에 따라 그릇의 소비처를 구분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또한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용재총화』의 번역본이나 이를 참고한 논문에는 “至世祖朝 雜用青磁”를 “至世祖朝 雜用彩磁”로 오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용재총화』는 경주부윤 황필(黃瑾, 1464~1526)이 1525년에 경주부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에 영인되었다(成倪(朴洪植 등 校勘·標點), 2000, 『慵齋叢話』,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學術行事委員會).

10) 『중종실록』 권82, 31년(1536) 11월 18일; 『중종실록』 권83, 32년(1537) 1월 19일.

11) 우산리 4·14호 요지에서 출토된 왕실 관련 명문자를 실견할 결과 이 두 요지에서 생산된 명문자기의 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기도자박물관 장기훈 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2) 일반적으로 그릇을 사용할 때 굽 안바닥에 표기된 명문은 드러나지 않는다. 명문은 무엇을 구분하는 기호로 의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관요 체제가 안정되면서 명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태토를 직접 긁지

에서 우산리 14호 요지로 이설되고 관요 체제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김귀한 2020a: 44~53).<sup>13)</sup>

셋째, 왕실 관련 명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백자에 새겨진 ‘內用’은 왕실 내에 특정한 소비처를 지칭하지 않고, 왕실이라는 포괄적인 소비의 범주를 뜻한다. 이에 비해 ‘大’·‘中’·‘世’·‘處’ 등의 명문은 왕실의 사적 재정이라는 점에서 ‘內用’과 성격은 동일하지만 각각 ‘대전’·‘중궁전’·‘세자전’·‘왕족의 처소’ 등 왕실 내 구체적인 소비처를 가리킨다.

넷째, ‘內用’명 백자는 1430년대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大’·‘中’·‘世’·‘處’명 백자는 1460~1470년대에 운영된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460년대경 백자의 생산단계에서 소비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16세기 이후 ‘大’·‘中’·‘世’·‘處’명 백자의 출토 수량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우산리 4호 요지는 총 34점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출토되었다. 시굴조사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량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산리 14호 요지(1480년대)는 왕실 관련 명문백자 2점이 수습되었다.<sup>14)</sup> 16세기 초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무갑리 2호 요지에서도 ‘內’와 ‘世’가 표기된 백자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16세기 초·중반에 운영된 가마에 대한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보고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sup>15)</sup> 15세기 말~16세기 초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생산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15~16세기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 장

---

않고 유약만 살짝 긁어내는 ‘유면음각’이라는 기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백자의 품질을 높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하여 우산리 14호 요지는 〈백자철화·世·명저부편〉과 같이 철화안료로 왕실 관련 명문을 적어 넣은 사례도 확인된다. 다만, 우산리 4호 요지에서 ‘一’과 ‘四’ 등을 철화안료로 적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산리 4호 요지에서도 왕실 관련 명문이 철화로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13) 후술하겠지만 내수사 사기장은 광주목에 소속된 공납요와 관요에서 그릇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467년경 사옹원이 광주목에 분원을 설치하자 분원에서 자기 생산을 이어갔을 것이다. 관요는 1480년대 체제가 안정되면서 ‘天’·‘地’·‘玄’·‘黃’이 새겨진 최상품 명문백자를 공급하였다. 관요 체제의 안정은 내수사 사기장의 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짐작된다. 세조~성종대 관요의 성립과 체제의 안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14) 우산리 4·14호 요지는 일반적인 시굴조사가 아닌 정밀한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유물폐기장에 대한 절개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의 경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 대표적으로 우산리 9호 요지(1542년경)와 변천리 9호 요지(1550년대)는 적지 않은 수의 ‘天’·‘地’·‘玄’·‘黃’ 명 백자가 출토되었으나 ‘大’·‘中’·‘世’·‘處’명 백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16세기 이후 ‘大’·‘中’·‘世’·‘處’명 백자의 생산이 급속히 감소하였다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내수사에서 ‘大’·‘中’·‘世’·‘處’명 자기를 제작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I. 내수사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 제작과 배경

『세종실록』과 『용재총화』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1433년경 백자를 사용하였다. 그는 금은기의 대체재(代替材)로 명 선덕제(宣德帝, 1425~1435)가 하사한 (청화)백자에 주목하였다. 세종은 명 황제의 반사품(頒賜品)인 (청화)백자를 국왕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였다(김귀한 2020d: 126~131). 이에 따라 그는 당시 널리 소비되고 있던 분청자가 아닌 백자를 어기로 채택하였다.

세종이 백자를 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왕실의 금은기를 모두 백자로 대체하기는 어려웠다. 금은기는 최고의 사치품으로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기명이었다. 1447년 문소전(文昭殿)·휘덕전(輝德殿)의 은그릇을 백자기로 대신하였는데, 이 기록은 왕실에서 금은기를 계속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박경자 2009: 71~74).<sup>16)</sup> 1430년대 경질백자가 제작되었지만 조선백자의 품질은 명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승지 신인손(辛引孫, 1384~1445)이 1435년 지난번 중국 사신 창성(昌盛)을 위한 연향(宴享) 때 그가 황제가 내려 주신 자기를 왜 쓰지 않느냐고 묻자 명의 자기는 품질이 좋고 조선의 자기는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주인의 탁자에는 좋은 그릇을 놓고 손님의 탁자에는 나쁜 그릇을 놓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기록도 주목된다.<sup>17)</sup>

여하튼 1430년대 이후 왕실의 자기 선호도는 분청자에서 백자로 바뀌었다. 최고 권력자가 백자를 선택한 이상 백자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김귀한 2020d: 131~13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47년에 문소전·휘덕전의 은그릇을 백자로 교체하였다. 더하여 15세기 중반 <백자상감·貞夫人金氏·묘지>(1441)<sup>18)</sup> · <백자·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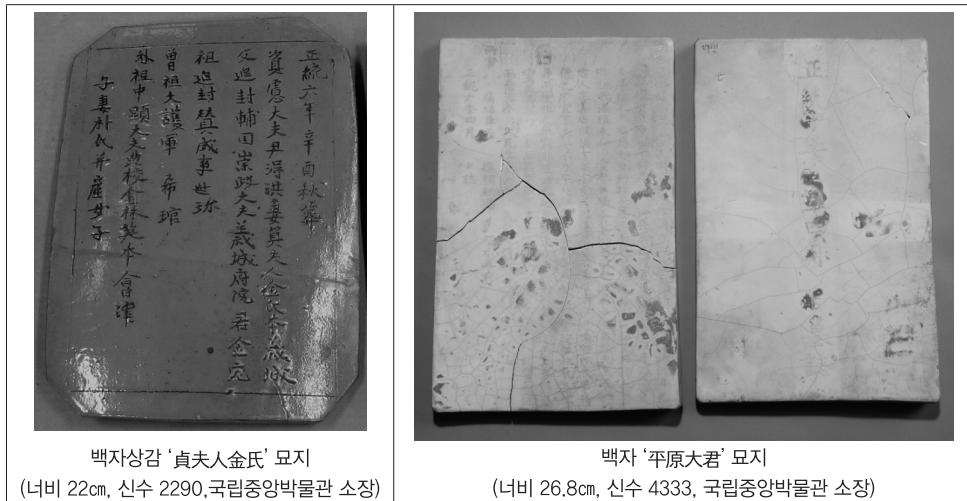
16) 『세종실록』 권116, 29년(1447) 6월 4일.

17) 『세종실록』 권68, 17년(1435) 4월 11일. 세종은 1433년 11월 14일 태평관(太平館)에서 창성(昌盛)과 이상(李祥) 두 사신에게 송별연을 열어주었다(『세종실록』 권62, 15년(1433) 11월 14일). 따라서 신인손이 언급한 상황은 1433년의 일로 추정된다.

18) 자현대부(資憲大夫) 윤득홍(尹得洪, 1372~1448)의 처인 의성 김씨의 지석으로 그녀는 정통(正統) 6년인

原大君'묘지>(1445)<sup>19)</sup> · <백자청화‘興寧府大夫人’묘지>(1456, 보물 제1768호)<sup>20)</sup> 등 백자 지석(誌石)의 생산이 증가하는 사실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조는 백자의 소비를 한층 장려하였다. 그는 1455년 중궁 주방의 금잔을 청화백자[畫磁器]로 대체하였고, 동궁도 자기를 쓰도록 명하였다.<sup>21)</sup> 동궁의 예로 보아 왕실 내 백자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백자상감‘貞夫人金氏’묘지>(1441)와 <백자‘平原大君’묘지>(144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60~1470년대에 윤영된 우산리 4호 묘지는 ‘大’ · ‘中’ · ‘世’ · ‘處’명 자기의 출토 수량이 급증하였다. 기준에는 백자에 ‘왕실 소용’이라는 포괄적인 소비의 범주를 나타내는 ‘內用’이라는 명문이 표기되었다. 1460~1470년대는 ‘內用’명 백자와 함께 구체적인 소비처를 의미하는 ‘大’ · ‘中’ · ‘世’ · ‘處’가 새겨진 그릇이 생산되었다. 그릇의 제작단계에서 소비처를 구분한 것은 백자의 소비 증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백자의 수요 증가는 생산량의 증대

1441년(辛酉) 가을에 매장되었다.

19) 평원대군 이琳(李琳, 1427~1445)은 세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다. <백자‘平原大君’묘지>는 푸른색의 유상채(釉上彩) 안료로 묘지명(墓誌銘)을 적었다(박정민 2014a: 81~82). 제1장의 앞면에 ‘正統十年乙丑四月 日墓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 세조의 장모이자 윤번(尹璠, 1384~1448)의 부인인 인천 이씨(1383~1456)의 지석으로 묘지명의 마지막에 ‘景泰七年丙子冬十月 日謹誌’라는 기록이 있어 경태(景泰) 7년인 1456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물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로 알려져 있다(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27~35). 보물 제1768호로 지정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1) 『세조실록』 권1, 1년(1455) 윤6월 19일.

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에서 기명의 소비처를 표기하여 생산·수납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문헌이지만 국가에서 옛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각전(各殿)마다 모두 사장(私藏)이 있었다는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up>22)</sup> 즉, 세조대 왕실 내 백자 소비가 확대되면서 ‘大’·‘中’·‘世’·‘處’명 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460년대 초 횡간(橫看)이 제정되고 공안(貢案)이 개정되는 등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왕실 재정 또한 국가 재정의 일부로 횡간과 공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행 연구(소순규 2018: 177~215 · 2019: 127~130)에 의하면 세조대 횡간과 공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464년 국가 재정 세출표인 횡간이 제정되면서 매년 국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sup>23)</sup> 둘째, 세조대 을유공안(乙酉貢案)은 세종대에 비해 공액(貢額)이 1/3 정도로 감축되었다. 셋째, 을유공안에는 공물뿐만 아니라 전세·공물·노비신공·진상을 아우르는 주요 세목이 포함되었다. 결국, 을유공안의 상정과 횡간의 제정을 통해 1464~1465년경 중앙 재정의 수입·지출이 고정되었다. 세조는 세종대에 비해 1/3 정도 감축된 공액으로 횡간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백자의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은 한 나라의 국왕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공적인 재정을 활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아버지로서 국왕은 왕실 구성원의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각종 기복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 신료들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운 사유재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宋洙煥 2002: 235~236). 임금의 사재(私財)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 바로 내수사였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 물품 가운데 공적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물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池承鍾 1985: 12~43). 세종은 1423년 내수소(內需所)를 설치하고 ‘內需之信’이라는 인신(印信)을 조급하였다.<sup>24)</sup> 내수소는 1466년 내

22) 『현종개수실록』 권9, 4년(1663) 9월 5일.

23) 『세조실록』 권32, 10년(1464) 1월 27일.

24) 『세종실록』 권19, 5년(1423) 1월 17일. 내수소는 본래 태조·태종이 잠저(潛邸) 때에 거쳐한 본궁(本宮)에 기원을 두고 있다.

수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식 관원을 둔 국가기구로 승격되었다.<sup>25)</sup>

『경국대전』에 의하면 내수사는 정5품아문으로 내용의 미포와 잡물, 노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sup>26)</sup> 그리고 내수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옹장(甕匠) 7명 · 야장(冶匠) 2명 · 주장(鑄匠) 10명 · 유장(鑰匠) 5명 · 사기장 6명 · 목장(木匠) 2명 등 32명의 장인과 수철장(水鐵匠) 6호를 경공장으로 두었다. 사옹원뿐만 아니라 내수사에도 사기장 6명이 분속되었다. 최근 이에 주목하여 내수사에 소속된 사기장이 ‘大’ · ‘中’ · ‘世’ · ‘處’명 백자를 제작하였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박정민 2015: 55~72, 2016: 78~87). 명문의 의미와 내수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횡간의 제정과 공안의 개정으로 인해 왕실의 사적인 백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자 1464년경 내수사에 사기장을 두고 왕실 관련 명문자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는 관요를 설치하기 위해 1466년 4월부터 1467년 4월까지 백자의 사용금지 → 생산 통제 · 공물 제외 · 백토 관리 → 사옹방의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 및 녹관의 설치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김윤정 2008: 56~59). 그는 1466년 6월 백자기를 공물에서 제외하였다.<sup>27)</sup> 그러나 관요는 1467년 4월경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 세조는 백자를 공물에서 제외하더라도 진상과 내수사 사기장에 의해 공급되는 백자로 왕실 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조는 즉위 이후부터 백자의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청자도 소비하였기 때문에 내수사에 사기장이 배속된 시기를 1455년경으로 소급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대략 10년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횡간이 제정된 1464년을 전후하여 내수사에 사기장이 소속되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내수사 사기장은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된 공납요(貢納窯)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산리 4호 요지를 비롯한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출토된 곳은 당시 광주목사의 관할하에 있던 공납요로 추정된다.<sup>28)</sup> 내수사는 백자를 생산하기 위한 백토나

25) 『세조실록』 권38, 12년(1466) 1월 15일.

26)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伍品衙門 內需司. “掌內用米布及雜物奴婢”

27) 『세조실록』 권39, 12년(1466) 6월 7일.

28)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광주목에는 벌을천(伐乙川) · 소산(所山) · 석굴리(石掘里) · 고현(羔峴) 등 차

시지(柴地) 등을 분급받지 못하였다. 1425년 세종은 명 황제에게 진봉할 백자를 광주목사에게 준비시키는 등 광주목은 일찍부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그릇을 생산하였다(박정민 2014b: 101~105).<sup>29)</sup> 광주는 도성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가마의 원료인 멜감이 풍부하였고, 한강 수계를 이용하여 백자를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내수사 사기장은 우산리에 있는 공납요에서 그릇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 우산리 4·5·17호 요지에서 다수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출토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관요가 우산리 14호 요지로 이설되면서 내수사 사기장도 함께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우산리 14호 요지에서도 왕실 관련 명문자기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내수사 製磁 활동의 한계와 관요로의 역할 이관

내수사와 관요에서 이원적으로 백자를 공급하는 구조는 156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大’·‘中’·‘世’·‘處’명 백자가 ‘天’·‘地’·‘玄’·‘黃’명 백자와 비슷한 시기인 1560년대까지 제작되었다는 가설(박정민 2016: 84~85)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산리 14호 요지(1480년대) 이후 ‘大’·‘中’·‘世’·‘處’명 백자의 생산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내수사에서 1560년대까지 왕실 관련 명문백자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 문제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자료도 부족하여 정확히 해명하기 어렵다. 필자 또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황증거를 통해 1501년을 전후한 15세기 말~16세기 초 내수사의 내용자기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 역할이 관요로 이관되었음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16세기 왕실의 재정 수요는 증가되었다(김성우 2001: 51~82). 왕실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백자의 소비 또한 확대되었다.<sup>30)</sup> 내수사는 사기장 6명만 소속되었을 뿐

---

기소 4개소가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소산은 현재 우산리 일대로 비정된다.

29) 『세종실록』 권27, 7년(1425) 2월 15일.

30) 연산군은 1502년 휘순공주에게 화룡준(畫龍樽)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승지 등은 화룡준의 경우 중국 사신이 올 때도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인데 공주의 집에 하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였다(『연산군일기』 권46, 8

요업을 위한 제반 여건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내수사만으로 왕실의 백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하였다.

왕실 내 백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수사에 백토를 공급하거나 시지를 분급하고, 인력을 추가로 지원했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에 관한 문헌이나 물질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산군대~중종대 내수사 폐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윤인숙 2013: 140~157; 이인복 2019: 177~190). 17세기의 사료이지만 백토를 채굴하여 운반하는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sup>31)</sup> 내수사 폐지 논의가 군주의 공(公)·사(私) 논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수사에 새로이 백토를 납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내수사는 왕실의 백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공장으로 사기장이 배속된 관청은 사옹원과 내수사뿐이었다. 사옹원은 1467년경 그릇의 생산을 담당하는 분사(分司)를 광주목(廣州牧)에 설치하였다(김귀한 2020c: 145~164). 이곳은 관영 수공업 체제로 운영하는 관요(官窯)이다. 1480년대 관요 체제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최상품 명문백자인 ‘天’·‘地’·‘玄’·‘黃’명 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관요는 전국에 산재한 백토를 공급받았다.<sup>32)</sup> 1493년 광주목 관내 6개 지역의 시지(柴地)도 분급받았다.<sup>33)</sup> 더하여 1505년경 갑번요(匣燔窯)와 상번요(常燔窯)에 의한 이원적인 가마 운용 체제가 확립되었다(김귀한 2020a: 117~123). 즉, 관요는 15세기 말~16세기 초 최상품 백자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만약 내수사의 제자 활동이 정지되었다면 그 업무는 사옹원의 분원인 관요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백자 ‘別世’명 저부편>이 주목된다.

곤지암리 1호 요지(1572년경)는 지표조사에서 <백자‘別世’명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은 저부편만 잔존하지만 유면을 긋어 표기한 ‘別世’는 뚜렷하게 관찰된다(표 3). 일반적으로 관요 백자에 새겨지는 명문은 1560년대 ‘天’·‘地’·‘玄’·‘黃’에

년(1502) 10월 29일). 연산군이 화룡준을 왕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사옹원이 관리하는 일상생활기명은 이미 내용으로 소비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술할 왕실 관련 접각명 백자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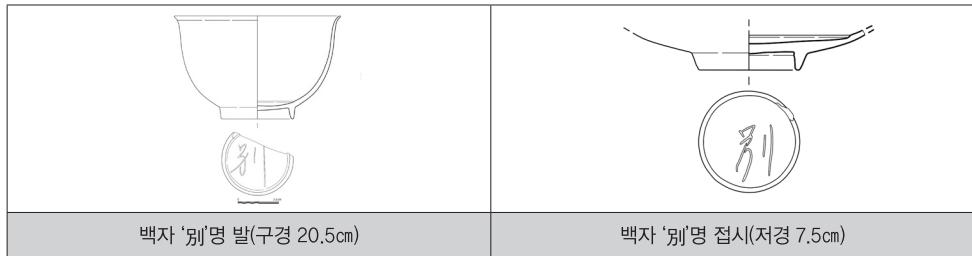
31) 『승정원일기』 141책 (탈초본 7책) 효종 7년(1656) 7월 20일.

32) 『중종실록』 권67, 25년(1530) 2월 5일.

33) 『성종실록』 권277, 24년(1493) 5월 25일.

서 ‘左’ · ‘右’와 ‘別’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4)</sup> 2009년에 시행된 곤지암리 1호 요지(1572년경)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左’ · ‘右’와 함께 ‘別’이 표기된 백자가 다수 확인되었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따라서 1560년대경 ‘別’명 백자가 제작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sup>35)</sup>

[표 5] 광주 곤지암리 1호 요지 출토 ‘別’명 백자(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조선시대 진상은 연례진상과 별진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左’ · ‘右’명 백자는 연례진상자기, ‘別’명 백자는 별진상자기일 가능성이 크다. ‘別’이 새겨진 백자는 관요에서 제작한 별기(別器)이다. ‘世’는 ‘세자전’을 뜻한다. 결국, <백자 ‘別世’명 저부편>은 관요에서 별번으로 생산한 세자전 소용의 그릇으로 볼 수 있다. 이 유물은 관요가 1572년경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비하는 백자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질자료이다. 다만, 언제부터 관요가 내수사의 역할을 대신하였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大’ · ‘中’ · ‘世’ · ‘處’명 백자는 15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16세기에 운영된 관요에서 왕실 관련 명문백자가 출토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15세기 말 ~16세기 초 왕실 백자의 공급 구조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연산군대에 제정된 신유공안(辛酉貢案)이 이러한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은 1501년 연산군에게 신유공안의 가행조례(可行條例)

34) 1560년대 관요 백자 명문이 그릇의 수납 · 출납과 관련된 명문인 ‘天’ · ‘地’ · ‘玄’ · ‘黃’에서 생산 분반을 의미하는 ‘左’ · ‘右’로 교체된 것은 16세기 관영 수공업 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관요를 관영 수공업 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관요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김귀한 2013: 16~18). ‘別’명 백자 또한 백자의 품질 하락 등 당시 관요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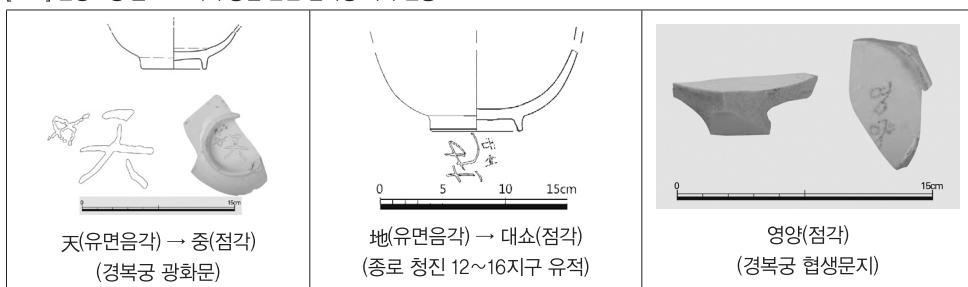
35) 광주 변천리 9호 요지(1550년대)는 한글로 ‘별’이 새겨진 백자뚜껑이 출토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2007). <백자 ‘別’명 뚜껑>이 별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별번이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를 올렸다. 연산군은 상정청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시행토록 하였다.<sup>36)</sup> 신유공안의 핵심은 물품의 전용(轉用)과 가정(加定)에 있다. 전용은 물건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정해진 수량 이외에 추가로 물건을 더 거두는 것을 뜻한다. 신유공안은 각 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많고 적음을 살펴 관청 간에 물품을 전용하여 가정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공안이었다(소순규 2019: 139~151). 하지만 왕실은 전용과 가정을 악용하였다.

16세기는 신유공안을 바탕으로 왕실 재정 수요가 확대되었다(高錫珪 1985: 179~180; 김성우 2001: 54~57). 당시 왕실의 재정은 성격상 크게 공재정(公財政)과 사재정(私財政)으로 분류된다(宋洙煥 2002: 24~25). 신유공안은 물품을 전용하는 데 국용과 내용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왕실은 국용의 재산을 사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다. 더하여 왕실은 그들의 신분과 권력을 바탕으로 가정 또한 어렵지 않게 요구 할 수 있었다(김귀한 2020b: 80~82).

사옹원은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공포된 이후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감결(甘結)을 통해 왕실에 물품을 공급하였다.<sup>37)</sup> 감결에 의한 물품의 확보는 왕실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이었다. 왕실은 공적 백자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한양도성 유적에서 ‘天’·‘地’·‘玄’·‘黃’명 백자에 ‘上’·‘大上’·‘中’·‘世’·‘恭王大’ 등 한자와 ‘웃제’·‘웃궁’·‘대쇼’·‘동쇼’·‘혜순’·‘영양’·‘덕홍’·‘정신’·‘효순’ 등의 점각(點刻)이 새겨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점각명들은 왕실과 관련된 명문이다. 명문의 의미는 ‘大’·‘中’·‘世’·‘處’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혜순’·‘영양’·‘덕홍’·‘정신’·‘효순’ 등은 군(君)과 옹주(翁主)를 뜻하는 것으로 ‘處’와 관련된 소비처로 생각된다. 한글 점각명 백자의 제작 시기는 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박정민

[표 6] 한양도성 출토 16세기 왕실 관련 점각명 백자 현황



36) 『연산군일기』 권40, 7년(1501) 7월 17일.

37) 『중종실록』 권91, 34년(1539) 6월 8일.

2012: 152~156 · 2014a: 191~211 · 2020: 79~80; 김윤정 2014: 146~169). 한자 점각명 백자의 제작 시기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후술하듯이 왕실은 적어도 1490년대경부터 사옹원 백자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릇에 왕실 관련 점각명이 표기되는 시기가 1490년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왕실 관련 점각명 백자는 신유공안을 바탕으로 왕실에서 사옹원의 국용 백자를 사적 용도로 전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귀한 2020b: 83~87).

왕실에서 신유공안의 전용 조항을 통해 사옹원의 백자를 소비하였다면 가정 또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백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옹원이 보관하고 있던 백자를 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백자 ‘別世’명 저부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실은 별번을 통해서도 백자를 확보하였다.<sup>38)</sup> 따라서 무갑리 2호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칠화 ‘世’명 백자>와 <백자 ‘內’명 발>은 관요에서 생산한 별기일 가능성이 크다. 15세기 말~16세기 초 관요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백토나 시지를 확보하지 못한 내수사에 백자 생산을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왕실에 의한 국용 재산의 사적 남용은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적용되는 1501년 이전부터 확인된다. 중종은 1519년 백포(白布)와 흑포(黑布) 40필을 대내(大內)에 들이라고 명하였다. 이에 대해 사신(史臣)은 성종은 왕자·왕녀가 많았으나 모두 공정한 사급(賜給)만 있었다고 칭송하였다.<sup>39)</sup> 그러나 이러한 성종조차 1489년 옹주의 집을 건립하는 데 재목과 기와를 제공하였다.<sup>40)</sup> 1492년에는 호조에 내수사의 곡식이 용도가 부족하니 중미(中米) 150석을 보내도록 하였다.<sup>41)</sup> 또한 제용감(濟用監)·사섬시(司贍寺)의 면포 2,500필 등 여러 물품을 내수사로 수송도록 하였다.<sup>42)</sup> 연산군대는 이러한 사례가 성종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sup>43)</sup> 좌의정 한치

38) 연산군은 1504년 규화배 1,000점과 앵무배 100점을 번조하라고 하였다. 이 사료는 별번과 관련된 최초의 문헌으로 주목된다(『연산군일기』 권54, 10년(1504) 6월 21일).

39) 『중종실록』 권37, 14년(1519) 11월 4일. 필자는 이 기록을 근거로 성종이 국용의 물품을 내용으로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김귀한 2020b: 80~81). 그러나 성종 또한 몇 차례 공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정도는 연산군이나 중종과 비교하여 훨씬 약하였다.

40) 『성종실록』 권225, 20년(1489) 2월 2일.

41) 『성종실록』 권261, 23년(1492) 1월 4일.

42) 『성종실록』 권267, 23년(1492) 7월 2일; 『성종실록』 권267, 23년(1492) 7월 9일.

43) 연산군대 내수사로 물품을 수송하는 기사는 『연산군일기』에서 쉬이 찾을 수 있다.

형(韓致亨, 1434~1502) 등은 근래에 별사(別賜) · 별부(別賄) · 특사(特賜)가 적지 않고, 수시로 입내(入內)하라는 명이 있는가 하면 내수사로 수납하라는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sup>44)</sup>

요컨대, 왕실은 1490년대경 국가의 공적 재정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 아울러 1501년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국용의 물품을 내용으로 전용하였다. 이러한 재정사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왕실은 늦어도 1490년경 사옹원에서 내용백자를 공급받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5)</sup> 내수사 사기장의 역할은 차츰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신유공안 가행조례가 시행된 1501년을 전후한 15세기 말 ~16세기 초 사옹원과 내수사에 의한 이원적인 백자 공급 체계는 사옹원으로 일원화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수사의 제자 업무가 공식적으로 사옹원에 이관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처음 왕실은 부족한 백자를 임의로 사옹원에서 전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신유공안이 제정된 이후 이러한 흐름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갔다. 따라서 1501년경 내수사의 그릇 생산 업무가 사옹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16세기 전반 내수사는 물품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중종은 1532년 왕자녀가 출합할 때 내수사에서 유기를 만들기 위해 공조에 납철을 진배하도록 명하였다.<sup>46)</sup> 그러나 유기 등의 물품을 백자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백자는 이를 제작하기 위해 사옹원에서 별도의 분원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大典通編』과 『大典會通』 등 조선 후기 법전에 보이는 내수사 사기장의 원수(元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sup>47)</sup> 장인은 법전에 기록된 수와 실제 입역한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사옹원 사기장의 경우 이미 1530년에 적지 않은 수가 이탈하였다.<sup>48)</sup> 17세기에도 실제 입역하는 사기장의 수와 법전에 기록된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sup>49)</sup> 그러나 법전에 기록된 사옹원 사기장의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내

44) 『연산군일기』 권32, 5년(1499) 3월 27일.

45) 우산리 4호 요지(1460~1470)에 비해 우산리 14호 요지(1480년대)에서 출토된 왕실 관련 명문백자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1480년대부터 사옹원의 그릇을 내용으로 전용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그러할 가능성만 제시해 두고자 한다.

46) 『중종실록』 권72, 27년(1532) 2월 14일.

47) 『大典通編』, 「工典」, 京工匠, 內需司. “銚匠七 治匠二 鑄匠十 鑰匠伍 水鐵匠六戶 大中小治各二 沙器匠六 木匠二”; 『大典會通』, 「工典」, 京工匠, 內需司. “銚匠七 治匠二 鑄匠十 鑰匠伍 水鐵匠六戶 大中小治各二 沙器匠六 木匠二”

48) 『중종실록』 권67, 25년(1530) 2월 5일.

49) 『승정원일기』 7책 (틸초본 1책) 인조 3년(1625) 6월 17일.

수사 또한 제자 업무가 사용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전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사의 입장에서도 사기장에게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가포(價布)를 거두거나 그들을 다른 역에 동원하는 편이 효율적이었다.<sup>50)</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왕실은 내수사에 대한 공·사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유공안을 바탕으로 친왕실적인 아문인 사용원의 공적 백자를 전용하였고, 백자를 임의로 가정하였다. 왕실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감결을 통해 사용원으로부터 백자를 공급받았다. 관요는 15세기 말~16세기 초 체제가 안정되면서 최상품 양질백자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내수사 사기장은 백자 생산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시행된 1501년을 전후로 한 15세기 말~16세기 초 내수사 사기장의 역할은 사용원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왕실에서 소비하는 백자는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 사용원에서 전담하였고, 이와 같은 백자 공급 구조는 1883년(고종 20) 관요가 공소(貢所)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 IV. 맷는말

지금까지 내수사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의 제작 양상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왕실 관련 명문자기는 15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백자가 어기로 사용된 1430년대부터 백자에 ‘왕실 소용’이라는 일반적인 범주를 의미하는 ‘內用’이 표기되었다. 하지만 1460년대 백자의 소비가 확산되면서 왕실 내 구체적인 소비처를 의미하는 ‘大·中·世·處’ 등의 명문이 새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1464년 횡간이 제정되고, 1465년 공안이 개정되면서 국가 재정의 수입·지

50) 1500년 공조는 단오 때 대궐에서 사용할 신이 거의 친 결례나 되는데 공장(工匠)이 없으니 내수사의 공장을 보내어 이를 제작하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연산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조에서 내수사에 소속된 공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장인이 다른 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연산군일기』 권37, 6년 (1500) 4월 25일). 한편, 사기장과 도기장은 재질은 차이가 있으나 그릇을 제작하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내수사 도기장(옹장)의 활동은 1637년 공조에서 전례대로 내수사 및 내주방(內酒房), 그리고 내동산(內東山) 소속 장인을 한시적으로 파견해 도기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60책 (탈초본 3책) 인조 15년(1637) 8월 5일).

출이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왕실은 내용의 백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내수사에 사기장을 두고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비하는 백자를 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수사는 6명의 사기장이 소속되었지만 요업 활동에 필요한 백토나 시지는 공급받지 못하였다. 내수사 사기장은 광주목에 소속된 공납요에서 그릇을 번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내수사는 왕실의 백자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왕실은 1501년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시행되자 합법적으로 국용의 물품을 내용으로 전용하였다. 그 이전인 1490년대에도 내수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사용원의 백자 또한 이 시기부터 왕실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하여 신유공안의 가행조례가 적용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요는 1505년경 체제가 안정되면서 왕실에서 요구하는 백자를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넷째, 왕실은 1467년경 관요가 설치된 이후 국용의 그릇은 사용원에서, 내용은 내수사에서 공급받았다. 사용원과 내수사에 의한 이원적인 백자 공급 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왕실은 내수사에서 백자 수요 증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용원의 백자를 전용하였다. 1501년 신유공안의 제정을 전후한 15세기 말~16세기 초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는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두 사용원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21. 4. 26 | 심사완료일 2021. 5. 26 | 게재확정일 2021. 6. 14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經國大典』·『經國大典註解』·『大典通編』·『大典會通』·『慵齋叢話』

### -國文-

- 경기도자박물관, 2016. 『김영훈선생 기증도편 자료집』.
- \_\_\_\_\_. 2019a,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3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19b,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20,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a, 『경북궁 발굴조사 보고서 光化門址·月臺址·御道址』.
- \_\_\_\_\_. 2011b,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 協生門址·營軍直所址·哨官處所址』.
-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1998, 『京畿道廣州中央官窯 圖版篇』.
-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 高錫珪, 1985, 「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귀한, 2013, 「15~17세기 관요 백자 명문의 변화와 그 배경」, 『야외고고학』17, 한국문화유산협회.
- \_\_\_\_\_. 2020a, 「15~17世紀 朝鮮官窯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b, 「조선 16세기 왕실의 관요 백자 소비 확대와 辛酉貢案」, 『야외고고학』39, 한국문화유산협회.
- \_\_\_\_\_. 2020c, 「조선시대 官窯의 명칭과 성격 재검토」, 『미술사학연구』308,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20d, 「고려 말~조선 초 백자의 位相 변화와 배경」, 『사학지』60, 단국사학회.
- 김봉준, 2010, 「銘文資料를 통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性格」, 『미술사학연구』266, 한국미술사학회.
- 김미소, 2019, 「조선 초기 관요 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 김영미, 2010, 「朝鮮時代 官窯 靑磁 研究」, 『미술사학연구』266, 한국미술사학회.
- 김영원, 2011, 「조선 전기 도자사」, 일조각.
- 김윤정, 2008,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미술사학연구』260,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14, 「조선 16세기 백자에 표기된 왕실 관련 한글 명문의 종류와 의미」, 『한국학연구』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경자, 2009,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민, 2012,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자기(瓷器)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1, 2012,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 \_\_\_\_\_. 2014a,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b,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3,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 \_\_\_\_\_. 2015, 「處'명백자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내수사(內需司)의 왕실용 백자제작」, 『야외고고학』22, 한국문화유산협회.
- \_\_\_\_\_. 2016, 「조선 전기 관요백자의 명문이 갖는 二元的 성격」, 『미술사학연구』290·291,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20, 「한양도성 내 조선시대 유적 출토 백자의 특징과 양상」, 『동아시아의 도자 문화: 백자』, 한성백제박물관.
- 소순규, 2018, 「세조대 공안(貢案) 수록 내용의 확대와 재정적 위상 강화」, 『역사와현실』110,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19, 「燕山君代 貢案改定의 방향과 辛酉貢案의 특징」, 『사학연구』134, 한국사학회.

- 宋洙煥, 2002,『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 오영인, 2017,「조선시대 동궁의 청자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그 배경」,『한국문화』7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인숙, 2013,「朝鮮前期 內需司 폐지 논쟁과 君主의 위상」,『대동문화연구』8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李鍾政, 2008,「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역사와 담론』50, 호서사학회.
- 이인복, 2019,「조선중기 내수사(內需司)의 운영과 공사(公私) 논쟁」,『역사교육논집』70, 역사교육학회.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 田勝昌, 2008,「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鄭肯植, 2008,「經國大典註解」,『서울대학교 법학』49-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鄭肯植 외, 2009,『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 정 담, 2018,「15세기 후반 광주(廣州) 관영사기소의 자기제작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池承鍾, 1985,「朝鮮前期 內需司의 性格과 內需司奴婢」,『한국학보』11, 일지사.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9,『광주 조선백자 요지』.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廣州 昆池岩里 492番地 遺蹟』.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鐘路 清進12~16地區 遺蹟』.

# The Production and Limitation of Porcelain with Inscription for Royals by Naesusa in 15th~16th-century Joseon Era

Kim, Kwi-Han(Senior Researcher,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stitute)

By around 1467, the white porcelain used by the royalty was supplied both by Gwanyo(官窯) which were branches(分院) of the Saongwon(司饔院) and Naesusa(內需司). The items for national use(國用) were produced by Gwanyo, and those for internal use(內用) by Naesusa.

White porcelain was selected for King Sejong's bowl(御器), which is why its demand soared. However, after Hweng'gan(橫看) was enacted in 1464, and as the Gong'an (貢案) was revised in 1465, it became more difficult to reliably obtain white porcelain for the royalty's personal use. Following this, it is estimated that in 1464, Porcelain with Inscription (銘文磁器) were produced potters who belonged to Naesusa

Only six Potters belonged to Naesusa, and because they were not provided with white clay (白土) and Siji (柴地), there were limitations in being able to respond flexibly to the rising demand for white porcelain. The production volume for prestigious porcelains for royals declined after peaking in the late 15th century. This is believ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Junyong (轉用) and Gajung (加定), found in the government's fiscal reform measures called Sinyugong'an (辛酉貢案) Gahaengjoriae (可行條例) of 1501.

The royalty was supplied with white porcelain for internal use by the Saongwon, before and after 1501. At the time, Gwanyo had been stabilized in its structure,

available to meet the royals' demand for white porcelain. This is believed to have gradually diminished the role of Naesusa's Potter. As a result, it is supposed that between the end of the 15th century and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the dual white porcelain production by both Naesusa and Saongwon was consolidated by the Saongwon.

**Key words : Saongwon, Naesusa, Royalty, Porcelain with Inscription, Sinyugong'an**